

[심 의 개요]

- 일시/장소 : 2018. 8. 2.(목) 13:00~17:00, 대학로 아르코 미술관 세미나실(3층)
- 심사사항 : 2018년 연수단원 정규직 전환 심사(28건)
- 심사위원 : 양지연(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 교수), 김준희(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공연예술산업정책연구소 소장), 박성완(노무사), 박소연(노무사)

[중점 심의방향]

- 연수단원 지원사업의 연속석상에서 실질적으로 연수단원이 정규직으로 채용 된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하였으며, 지원신청서 및 근로계약서 등 제출서류를 토대로 연수단원 참여 이력 확인 및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함.
- 지원신청서를 토대로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일자 등을 검토하여 연수단원 중 정규직으로 전환한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 결정하였으며,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단체는 모두 조건부로 결정함.
- 조건부는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기간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단체이며 별도의 근로계약서 체결 절차를 통한 조건부로 승인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살려 최대한 지원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을 올바르게 유도하고자 하였음.

[전반적인 평가 또는 사업개선방향 의견]

- 본 사업은 감사원의 연수단원 취업률 제고 노력 권고와 여러 자문결과 등을 반영하여 총 28개 예술단체가 지원 신청하여 조건부 포함 22개 단체를 우선 선정하였다.
-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이 2017년부터 지원 공고가 되었음에도 올해 28개 단체만 신청하였다.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더 많은 단체에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원신청 자체가 저조한 것은 반대로 문화예술분야의 청년인력이 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렵고 일자리가 부족한 반증으로 볼 수 있어 연수단원 참여 이후 예술인력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정규직"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는데 "정규직"의 본래의 의미에 맞게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도 있지만,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명확히 표기하였거나 "계약해지일까지로한다." 등 계약해지 가능성을 열어

두어 정규직 근로계약서라 보기 어려운 경우 역시 존재하였음. 예술계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현재의 불공정한 고용 환경에 머물러 있기 보다는, 법률에 따른 정규직 고용을 통한 공정한 창작환경이 확산되기를 기대함.

2018년도 연수단원 정규직 전환심사위원 일동